



2018년 8월 5일(제887호) 연중 제18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2014년 1월, 평생 꿈에 그리던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바라고 바라던 주임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작년 한 해 12사단 을지성당에서 많은 추억을 함께 간직하며 사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을지성당을 떠나오며 교구장 주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영광스럽게도 견진성사를 제가 주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견진성사를 주례하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 주임신부님 자리인 가운데에 제가 앉으며 주임신부의 느낌을 듬뿍 받으며 행복했지요. 그런데, 미사 후 신자분들과 헤어지고 나서 사제관에 홀로 앉으며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지금 나는 내가 마치 예수님 이라도 된 듯 마냥 그렇게 의기양양해 하며 예수님의 자리를,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고 있구나. 나는 그저 대리자일 뿐인데...’ 이런 생각 말이지요.

주교님에게만 권한이 있는 견진성사 주례를 위임받아 주례를 한번 하고 나니, 마치 제가 주교님이 된 것 마냥,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된 것 마냥 들떴던 것이지요. 저는 성직자이기도 하지만 사람이지요. 그저 대리자일 뿐입니다. 저로 인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혼동하여 제가 돋보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저는 제 본연의 임무인 주님을 돋보이게 하는 것에 더욱 충실해야 하는데, 제가 느꼈던 그 좋았던 느낌들에 취해 잠시 저의 임무를 망각하였습니다. 어쩌면 바쁜 현대 사회 속에 살아가며 여러모로 간절함이 생겨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도 복음 속에 군중들처럼 어떤 표징을 보아야지만 믿고 따르려 하는 그러한 신자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길 원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금세 없어질 그 무언가를 쫓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활동하고 계시는 주님께 눈과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을까요?



박원재(프란치스코) 신부
강철(육군 50사단) 상당 주임

- 제 1 특 시** 탈출 16,2-4.12-15
- 회 답 송** ◎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 제 2 특 시** 에페 4,17.20-24
- 복음 권호송**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 복 음** 요한 6,24-35
- 영 성 제 송**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김대권 베드로



성인명: 김대권 베드로 (金大權 Peter)
 신분: 순교자
 활동연도: ?-1839년

김대권(金大權) 베드로는 충청도 청양의 수단이(현, 충남 청양군 사양면 신왕리)에서 태어나, 보령의 청라동(현, 충남 보령군 청라면 청라리)으로 이주해 살았다. 김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교리를 배워왔으나, 열심히 계명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부모가 사망한 뒤였다.

김 베드로는 언제나 교리의 가르침에 따라 계명을 지키는 데에 열중하였다. 주일마다 이웃에 복음을 전하였으며, 예수 성탄 대축일이면 근처의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면서 밤을 새웠다. 사순 시기 때면 기도와 묵상을 거르지 않았고, 하루에 한 끼의 식사만을 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아우 김 야고보가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도 아우의 뒤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순교의 뜻을 밝혔다.

김 베드로는 전라도 고산으로 이주하여 교우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1827년 정해박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때 그는 교우들에게 피신을 권유하면서도 자신은 천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오래지 아니하여 포졸들이 그 마을로 들이닥치자, 김 베드로는 웃는 얼굴로 그들 앞에 나아가 순순히 고산 관아로 끌려갔다. 고산에서 한차례 신앙을 증언한 김 베드로는 곧 전주로 이송되어 혹독한 형벌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서적을 갖다 바치거나 교우들의 이름을 댈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전주 관장이 그의 아들을 데려와 목에 칼을 겨누었을 때도 그는 “이러한 일로 목이 잘리면 아들에게도 크나큰 영광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배교를 거부하였다. 이후 그의 아들은 유배형을 받았다. 감사 앞으로 끌려가서도 김 베드로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혹독한 형벌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수난의 은혜를 한 터럭만이라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순교의 뜻을 드러냈다. 감사는 할 수 없이 김 베드로를 옥에 가두도록 명하였다.

김대권 베드로는 동료들과 함께 12년 동안을 전주 옥에서 생활해야만 하였다. 그동안 그는 세 번이나 자신의 사형 선고문에 서명하면서 한결같이 목숨 건지기를 거부하였다. 그러다가 1839년의 기해박해 때, 임금의 명으로 전주 장터(숯정이)로 끌려나가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39년 5월 29일(음력 4월 17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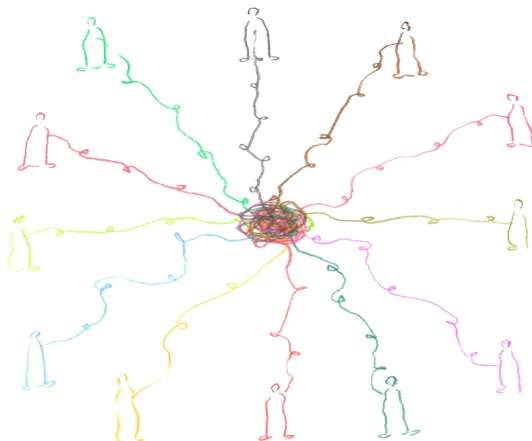
복	음	목	상
---	---	---	---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소중한 만남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색을 공유하며
 살 수 있다면
 이 세상
 생각보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생각보다
 살 맛 날 것입니다.



신분 또는 개인명, 신중하는 인간

신중

상화이야기

신로렌조 성당

산로렌조 성당은 피렌체의 유력가문인 메디치 가문의 가족들이 많이 묻혀있는 피렌체의 큰 성당 중 하나이다. 아래 그림은 마르텔리 경당의 왼쪽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 중 하나로, 마르텔리는 성당의 보수를 돕는데 일조한 이 당시 피렌체의 명망 높은 상인이었다.



언뜻 보기에 이 그림은 일반적인 수태고지화의 공식을 충실히 따른 것처럼 보이는데, 중앙의 기둥을 중심으로 왼편에 천사 두 명과 오른편에 가브리엘 천사와 성모님이 배치되어 있다. 전경의 인물들 뒤로는 깊은 공간이 있고, 건물과 나무로 둘러싸인 정원이 보인다.

붉은 겹옷을 두르고 허리를 끈으로 맨 천사들 중 한 명은 우리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으며, 그 바로 옆의 천사 위로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보이는데, 비둘기의 부리에서 나오는 금색 빛이 가브리엘과 성모님을 향하고 있다.

가브리엘이 성모님께 무염시태를 알리는 순간 이자 공간이 표현된 그림의 오른쪽 부분에 이 제단화의 독특한 발상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성모님의 동정을 상징하는 유리 물병이다. 유리 물병 자체는 수태고지화에 일반적으로 보이는 소품이나, 유리 물병이 배치된 곳의 건축적 공간이 물병 모양 곡선 형태로 들어가 있다. 이것은 관객들이 위치하는 공간과 수태고지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분리하는 동시에 연결하는 장치로, 이 순간에 신성함과 동시성을 부여하는 화가의 흥미로운 발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마르텔리 제단화, 수태고지>, 1440년경 제작
 피날 위 토펙페리 화, 175cm x 183cm
 피렌체, 신로렌조 성당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8주일 : ■무리 최민성 신부

◆ 교구장 동정

- Knights of Columbus 연례모임
 때·곳: 7. 30(월)~8. 11(토), 미국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군 복음화, 변함없는 열정으로” - “나와는 온 세상에 기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야리” (마르 16,15)